

原油價格下落과 屢望

이 資料는 지난 4月 13日 日本經濟新聞에 실린 日本 經濟企劃庁 經濟 研究所長 福地 崇生氏의 글을 要約 拔萃한 것이다. (編輯者註)

I. 序 言

第 1次 石油危機로부터 10年이 지났다. 그동안 世界經濟는 激動을 겪었지만, 그것은 또한 同時에 人類史上 最大의 카르텔인 OPEC (石油輸出 國機構)의 盛衰의 歷史이기도 하다.

그러나 國際石油市場의 動向은 오늘날도 如前히 世界景氣를 占치기 위한 重要한 要素이다.

따라서 Ⅱ章에서는 이제까지의 OPEC의 歷史를 4 期로 나누어서 分析을 하고, Ⅲ章에서는 將來 予想 되는 몇 가지의 시나리오를 陳述하고 日本의 役割을 檢討해 보고자 한다. 다만 國際石油市場은 여러 가지의 制度的 要因이 얽혀있고 各種 數值가 正確하게 把握될 수 없기 때문에 以下의 分析은 곳곳에서 대담하게 簡略化를 하고자 한다.

Ⅱ. 当初의 戰略은 資源의 国有化

開發途上國의 政治的獨立, 資源내셔널리즘의 熱氣를 背景으로 하여 OPEC가 成立된 것은 1961년 이다. 그 후의 國際石油市場의 推移는 다음과 같이 4 期로 区分하는 것이 經濟分析上 適切하다고 생각 된다.

第Ⅰ期(61~73年), 第Ⅱ期(73~79年), 第Ⅲ期(79~81年), 第Ⅳ期(81~83年)이고, 各己 OPEC의 形成期, 興隆期, 全盛期, 衰退期에 해당된다. 뒤에 叙述하는 것과 같이, 石油價格, 販賣量, OPEC의 市場占有率의 變化로 各期는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다음에 各期마다의 특징을 살펴 보기로 하자.

第Ⅰ期(61~73年)·石油資源의 国有化

OPEC의 形成으로부터 第1次 石油危機까지는 OPEC의 形成期, 始動期에 해당된다.

이 時期는 石油資源의 国有化를 둘러싼 메이저 (國際石油資本)와 OPEC의 主導權싸움이 繼續되고, OPEC의 戰略目標은 주로 石油資源의 国有化에 두어졌으며, 60年代 末까지는 OPEC諸國은 대체로 100%, 적어도 60% 国有化에 成功했다. 이즈음 OPEC의 支配力은 國際的인 流通機構까지 미치지 않고, 石油價格은 주로 需給關係에서 決定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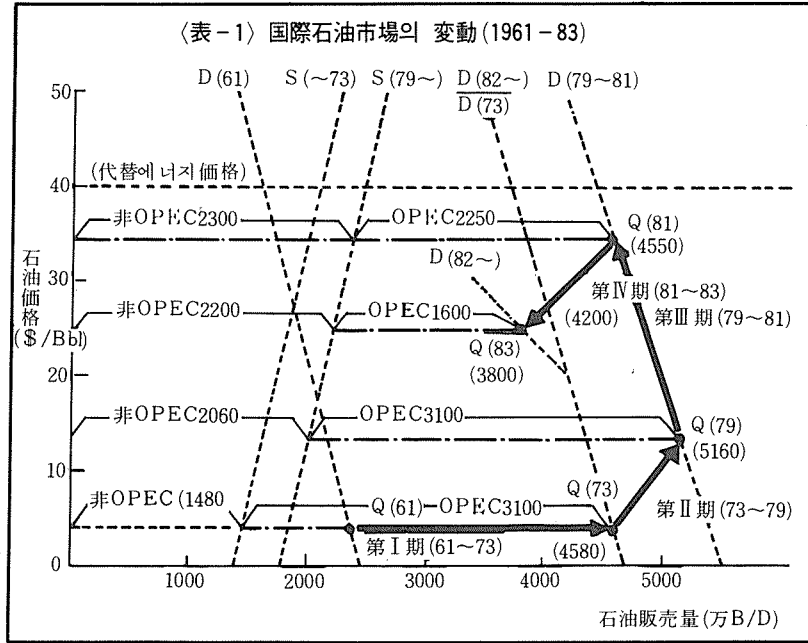
지금은 想像하기 어렵지만, OPEC의 成立誘因의 하나는, 메이저가 中東原油의 販路를 擴張하기 위하여 價格을 배럴당 1달러40센트에서 1달러20센트로 낮추려고 하여 產油國利料를 깎아 내리려 했던 것이다. 이것으로 象徵되는 것처럼 中東原油의 生産原價는 대단히 저렴하고 폴코스트 原理로 價格을 決定하여도 2달러 정도로 충분히 取支가 맞았다. 이렇게 해서 石油價格은 73年의 石油危機前의 3달러 未滿까지 至極히 安定되어 있었다.

다른 面에서는 값이 싼 石油를 基礎로 先進國의 重化學工業, 石油多消費型産業을 中心으로 하는 工業化, 經濟成長이 進行되었다. 自由世界의 石油消費量은 대체로 年 5.5% 늘어났고, 61年의 2,400만 B/D로부터 73년에는 4,580만 B/D에 달하고 있다.

(表-1)에서는 第Ⅰ期의 움직임은 Q(61)부터 Q(73)에의 水平移動에 該當한다.

非OPEC諸國의 石油供給은 限界生産費가 急上昇하기 때문에 S(73)과 같이 일어서 있다. OPEC의 供給은 3달러로 대체로 플랫폼하다. 이리하여 需要

治財가 된 느낌을 주고 있다. 「로마클럽」의 勸告가 나와 石油資源의 有限性이 強調되고, 이란革命등의 不安定한 中東의 政情이 不足感을 부채질했다. 美国이 国内 中小石油資本의 保護를 위해 国内 石油價格을 低價로 維持하여 開發, 生産이 停滯되고, 石油輸入이 急増된 것도 이러한 傾向에 박차를 가했다. 이러한 激動에 対応하여 消費国側은 短期的으로 有效한 対応策이 없어서 일제히 심한 인플레이와 不況을 겪게 되었고, 그것을 벗어나는데 3~4年을 要하게 되었다.



曲線이 D(61)부터 D(73)으로 移動하는 것과 함께 需給曲線의 交叉點이 Q(61)부터 Q(73)으로 움직여서 저렴한 價格의 石油의 無制限供給, 더 나아가서 인플레이 없는 經濟成長이 實現되었다. 73年 頃 OPEC의 供給은 대체로 3,100만 B/D였고, 非OPEC 諸國의 供給(自由世界의 非OPEC産油國 生産에다 共產圈의 純輸出을 包含) 約 1,480만 B/D를 除外하고 自由世界 國際石油市場에서의 占有率은 7割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第Ⅱ期(73~79)·價格引上을 위한 戰略變更

OPEC가 國際市場에서의 圧倒的인 占有率을 背景으로 石油價格의 引上을 主要한 目標로 삼고, 石油消費國이 그 要求를 받아 들일 對策에 狂奔했던 OPEC의 興隆期.

石油價格은 우선 73~77年에 3달러未滿으로부터 4倍 以上으로 引上되어 79年初에는 13달러 以上으로 올랐다. 無制限으로 供給되는 財貨는 自由財이다. 需要에 対応하여 供給이 현저하게 希少하다면 公權으로 供給을 促進시킬 必要가 생기고 政治的으로 供給條件이 決定되는 財貨가 된다. 이 時期에는 石油는 말하자면, 自由財로부터 經濟財를 뛰어 넘어 政

그러나 그 後에 先進國은 다시 完滿한 成長으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石油消費量은 73~79年 사이는 年 1.5%의 比率로 늘어났고, 79年에는 5,160만 B/D라고 하는 史上 最高水準에 달하였다.

政治財의 느낌을 나타내는 第Ⅱ期의 石油市場의 움직임은 一種의 市場均衡狀態에의 接近이고 石油價格의 上昇도 市場의 需給메커니즘에 의해 基本的으로 決定되었다고 생각된다. 石油價格이 13달러로 急騰하였음에도 不拘하고, 先進國에서는 대체로 3年後는 狂亂的인 物價는 잡히고, 物價는 새로운 石油價格을 前提로 하여 新均衡價格體系에 接近했다.

그 過程에서 石油多消費型 産業構造로부터 石油節約型 産業構造에의 變換이 促進된 것이 첫번째의 證據이다. 또한 몇가지의 證據는 價格의 上昇에도 不拘하고, 需要는 계속 增加하고 OPEC는 第Ⅰ次 石油危機前과 같은 모양의 供給水準인 3,100만 B/D를 維持하였다는 것이다.

다른 面에서, 價格의 急騰에 따른 非OPEC 諸國의 供給이 急増하였다. 이 때문에 (表-1)에서처럼 非OPEC諸國 供給曲線은 S(~73)으로부터 S(79~)로 우측으로 移動하였다. 需要의 增加와 함께 需要曲線은 D(79~81)로 右側으로 移動하였기 때문에

需給의 交叉點은 Q(73)으로부터 Q(79)로 움직였지만, 그림에서 理解할 수 있듯이 需要量의 增加(580만 B/D)는 주로 새로운 非OPEC諸國의 供給에서 調達되었으며, OPEC의 供給量은 維持되었지만, 供給占有率은 7割에서 6割로 低下 되었다.

第Ⅲ期(79~81年)·先進國經濟에 큰 打擊

여전히 供給의 2분의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OPEC가 그 支配力에다 當面한 上限 가까이까지 石油 價格을 밀어 올리는데 成功한 OPEC의 最盛期.

그 방아쇠는 79년의 이란政變으로부터 80年 가을의 이란·이라크戰爭의 勃發로 이르는 一連의 政治的 緊張과 그로 인하여 市場을 支配하고 있던 石油 供給不足에 대한 우려로 이어진다. 石油의 公式 販賣價格은 79년의 13달러가까이로부터 81年末의 34달러50센트까지 段階的으로 引上되어 上昇幅은 充分히 第Ⅰ次 石油危機를 上回하고 第Ⅱ次 石油危機가 出現되었다.

이 時期의 하나의 特徵은 恒常 市場의 實勢價格을 가리키는 스파트價格(長期契約에 의하지 않은 短期의 現物市場의 價格)이 公式 販賣價格을 큰 幅으로 上回하였다는 點이다. 스파트價格은 79年末에는 42달러75센트 가까이로, 누차 公式價格을 10달러 이상이나 上回하였다.

81년에야 겨우 公式價格의 線까지 下落하였는데 이러한 價格差로부터 判斷해 볼 때, 恒常 超過需要 壓力이 存在하고 壓力이 없어질 때까지 價格이 올랐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은 需要의 一部는 投機的 혹은 自己防衛的 動機에 基礎를 둔 在庫가 늘어난 것이고, 34달러50센트라고 하는 史上 最高의 石油 價格은 實需要입장에서도, 또는 消費國의 支拂能力의 입장에서조차 아마 너무도 올랐던 水準이라고 생각된다.

第Ⅱ次 石油危機에서의 石油價格의 急騰은 73年以後의 消費國의 脫石油産業構造變化 努力을 분쇄시켰다. 石油價格의 上昇은 利潤率의 低下, 成長에의 資源의 枯渴을 若起시키고, 先進國 全体로 볼 때, 經濟成長은 거의 제로成長이 되어버렸다. <表-1>로 말하자면, 需要曲線은 D(79~81)에서 固定된 채로 움직이지 않고, 이 때문에 石油價格의 上昇과 함께 需要量은 5,160만 B/D로부터 81년의 4,550만

B/D까지 下落하였다. 史上 最初로 石油需要量이 減少한 것이다. 美國에서는 이 時期가 카터로부터 레이건의 政權交替期에 該當하나, 이리하여 消費國은 일제히 코스트푸시 인플레이와 失業의 增大라고 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苦惱하게 되었다. 더욱 더 나쁜 것은 先進國들의 예전부터의 비만체질, 선진 國病이 뚜렷이 나타나기 始作했다는 점이다. 즉, 野心的인 社會福祉計劃에 基礎를 둔 過大한 政府, 高度의 社會保障에서 비롯된 노동기피, 낮은 저축률 및 인플레이가 貨金引上에 되미치는 貨金決定 시스템 등이다.

또 한번 果敢하게 도약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症狀을 一掃하고, 體質改善을 이룩하지 않으면 안된다. 레퍼리(referee)의 카운트에 쫓기면서 急速히 體質改善을 하고 體力을 증강하는 것이 레이건의 供給強化 經濟政策이다. 그러나 그 하나의 必要한 條件이 작은 政府의 實現이었다면, 各國 모두 均衡 財政을 強化하고 積極的인 成長促進의 財政政策을 봉쇄한 상태 그대로 이 難局과 부딪혔다.

이 時期에는 石油價格의 上昇과 함께 需要量의 減少 및 OPEC諸國의 供給量은 2,250만 B/D로 激減하였으며, 非OPEC諸國의 供給量 2,300만 B/D와 거의 같게 되었고, 카르텔의 인 強한 市場支配, 價格維持力은 이제 限界에 이르고 말았다.

石油에는 燃料資源으로서 石炭, 原子力, 水力發電 등의 競合資源이 있고, 또한 將來 開發可能한 代替에너지源이 있다.

代替에너지의 採算에 얽혀지는 開發코스트는 인플레이의 過程에서 上昇하지만, 타르샌드는 27달러, 오일샌드는 37달러, 석탄액화는 50달러 이상이라는 數值이다.

이러한 代替에너지源의 供給은 石油에 比하면, 대단히 豊富하기 때문에 하나의 目標로서 現在의 價格에서는 40달러 程度에서 長期的으로 代替에너지가 無制限 供給될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그러므로 長期的으로는 石油價格은 40달러를 넘지 않을 것이고, OPEC가 公式價格을 34달러 이상으로 하고 스파트價格이 40달러를 超過할 경우, 이미 石油의 市場價格은 이 上限值에 接近하여, 이것보다 높아진다 하여도 必然的으로 反落할 運命에 處해 있다.

第Ⅳ期(81~83年)·在庫放出과 需要減退

史上 最初로 公式 石油價格이 下落한 OPEC의 衰退期.

石油價格이 上限에 接近하고, 反轉의 징조가 있었다. OPEC의 市場占有率이 5 割을 깨뜨리고, 支配力이 弱해진 것을 背景으로 消費國의 停滯, 實需要의 減退가 石油價格 下落의 主因으로 되었다.

美國의 實質 GNP는 82年에는 前年比 1.8% 減少 되었고, 79年의 水準에 조차 未達하였다.

石油節約型 產業에의 轉換, 石油節約技術이 普及 되었고, OECD 全体에서는 GNP當 石油消費의 原 單位가 73~81年 사이에 27%以上 低下하고 있다.

이 石油節約 努力과 不況의 탓으로 實需要가 減退하고, (表-1)에서 본다면, 需要曲線(D82~)로 거의 第Ⅰ次 石油危機前의 位置까지 떨어졌다.

게다가 第Ⅲ期에 쌓여졌던 在庫의 放出이 需要의 減退에 拍車를 加했다.

世界의 石油備蓄量은 第Ⅱ期(73~79年)의 20億배 럴以上에서 40億배 럴로 늘어났고, 第Ⅲ期末인 81年 末에는 55億배 럴(消費量 4,550만 B/D의 120日分)까지 增加하였다.

일단 放出이 始作되면, 在庫의 評價損을 막기 위하여 맹렬한 備蓄의 放出이 일어나게 되는데, 82年 末에는 40億배 럴을 돌파하고, 83年에 들어 오고나 서도 300만 B/D의 속도로(年間 約10億배 럴) 放出되 고 있다.

20달러 가까이까지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先行感이 없혀서 이러한 在庫放出로 因하여 (表-1) 에서와 같이, 需要曲線이 D(82~)로 더욱 平坦하게 꺾어지고 있다.

이리하여 83年 3月 14日에는 OPEC의 公式 販賣價格이 29달러로 引下되었지만, 스파트價格은 恒常公式價格을 下回하고 있고, 83年 中에는 實勢 25달러 程度로까지 떨어질 것 같은 氣勢이다.

OPEC原油收入의 大幅減少

83年 3月 時点에서의 實需要는 대체로 4,200만 B/D이고, 在庫의 放出을 除外하면 3,800만 B/D로 推定된다. 이즈음 OPEC가 1,600만 B/D, 非OPEC 諸國의 供給이 2,200만 B/D로서, OPEC의 市場占

有率은 4割로 떨어져 있다. 1,600만 B/D는 60年 代 中半쯤의 水準밖에 되지 않는다.

60年代 中半, 73年, 79年, 83年의 OPEC의 收入은 「生産量×價格×365日」로 計算하면 117億 달러 339億달러, 279億달러, 169億달러가 된다. (83年值 是 29달러로 計算) 이리하여 83年의 OPEC 收入은 81年에 比하여 4割 減少하였으며, 野心的인 工業 化計劃에 着手했던 OPEC諸國이 共通으로 資金難 에 苦惱하게 되었고, 3月 14日에 決定된 國別割當 總量 1,750만 B/D를 超過해서 投売에 닥치게 된 나라도 있다.

이렇게 하여 史上 最大의 OPEC石油카르텔은 그 支配力, 存在意義를 喪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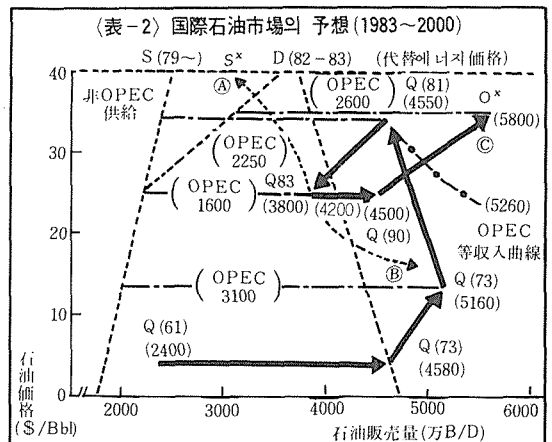
Ⅲ. 石油減産에도 增産에도 問題

〈시나리오A〉

GCC(灣岸協力會議諸國: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 이트, 아랍에미레이트 등 6國) 減産에 따른 石油價格 引上케이스.

GCE도 当面 資金 不足에 苦惱하고 있지만 短期 的으로 販賣를 서두르는 것은 明白히 損害이므로, 減産에 따른 價格 引上策을 採択한다.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3國 만으로도 割當量은 700만 B/D를 超過하기 때문에 2 분의 1인 350만배 럴만 減産하여도 現在의 供給이 거의 10% 減少되고, 短期的으로 超過需要가 發生하



여, 石油價格은 다시 上限 가까이까지 上昇하게 될 것이다. [(表-2)의 Q(83)으로부터(A)]

石油消費量은 減少하지만, 消費國의 支拂額은 增加한다. 消費國의 支拂이 늘어나면 GCC의 收入減少란 犧牲 위에 GCC外의 OPEC諸國과 非OPEC產油國의 收入이 增加할 것이다.

GCC로서도, 이러한 減産으로 長期的 收入을 增加시키면 收支가 맞는 方法이지만, 石油價格이 40달러에 接近하는 것에 따라 非OPEC 供給과 代替에 너지 供給이 增加하고, OPEC全體의 收入이 增加되지 않을 危機도 있다.

그러나 強行한다면, 短期的인 OPEC 海外資産의 流出과 石油價格의 上昇으로, 第Ⅲ次 石油危機와 더불어 金融不安이 發生하고, 世界經濟가 大混亂을 겪게 되는 것과 함께 長期的으로는 代替에너지의 轉換이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시나리오 B〉

OPEC 增産케이스

(表-2)에서의 OPEC等收入曲線에서와 같이, 石油價格이 34달러에서 29달러, 25달러로 下落하면, OPEC가 81년과 같은 石油收入을 扞保하는 데에는 各己 2,670만 B/D, 3,060만 B/D로 販賣量을 增加시킬 必要가 있다. 現在는 1,600만 B/D로 日本 外務省의 試算에 따르면, 25\$의 경우 全部의 OPEC13國이 必要한 最少限의 額數에 比하여 石油收入이 不足하여 會計 不足額은 636億달러로 거의 資産運用 利益으로 메운다 해도 260억달러가 不足하다.

특히 外貨收入의 90%, 國庫收入의 75%를 石油收入에 依存하는 나이지리아처럼 生産量이 79년의 240만 B/D로부터 83년 1월에는 80만 B/D로 떨어진 나라는 深刻하여 2월 20일에는 OPEC價格協定을 無視하고 5.5달러 引下하여 廉價販賣로 줄담을질치고 있다. 이리하여 OPEC 各國이 增産, 廉價販賣에 의하여 生存하게 되는 케이스를 살펴본다면,

石油價格은 短期的으로 20달러 以下로 되고 消費國의 經濟成長이 加速되어 需要增加가 생기고 消費量도 81년의 4,550만 B/D를 超過하게 될 것이다.

25달러 以下로 갑자기 下落한다면 代替에너지 開發도 致命的의 打撃을 받는다.

GCC 以外の 供給者, 代替에너지가 致命傷을 입

은 後에 다시 需要의 回復과 함께 OPEC가 새로운 形態로 支配力을 強化시키는 第Ⅲ次 石油危機가 發生할 것이다.

石油資源은 有限하므로, 結局은 燃料은 代替에너지로 바뀌고, 石油은 化學原料로서의 用途에 限定, 使用하는 것이 人類의 宿命이다. 다만 代替에너지 開發에는 龐大한 時間과 資金이 들고, 무엇보다도 確固한 長期的인 展望, 政策이 必要하다.

따라서 長期的 計劃으로 石油의 보다 合理的인 利用을 위하여, 混亂을 피하면서 다가올 供給不足을 克服해 나가는 것이 人類에게 있어서 現在의 最大의 課題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2000년까지의 石油 需給을 생각하며 이의 實現方法을 講究해보기로 하자.

石油은 언제쯤부터 供給不足이 될 것인가?

國際에너지機構(IEA)의 予測으로는 世界의 經濟成長率을 80~85年 2.5%, 85~2000年 2.9%라고 한다면, 石油需要가 80년의 約 5,000만 B/D로부터 90년에 5,300만 B/D, 2000년에 6,600만 B/D가 된다. OPEC의 供給은 2,000만 B/D에서 2,600만 B/D이지만, 世界의 需給은 90년까지 거의 均衡을 이루고, 2000년에는 1,500만 B/D 程度 不足하다.

〈시나리오 C〉

難關克服을 향한 協調케이스

臨時로 IEA의 予測대로 消費量이 90년까지 300만 B/D, 게다가 2000년까지 1,300만 B/D 增加한다고 한다.

出發點을 現在 實需要인 4,200만 B/D라고 한다면, 消費量은 90년에 4,500만 B/D, 2000년에 5,800만 B/D가 될 것이다. (5,800만 B/D는 IEA予測의 下限値와 같다.) OPEC供給이 2000년에 2,600만 B/D라 한다면 非OPEC供給으로 3,200만 B/D(81년의 2,300만 B/D보다 900만 B/D增加)充當된다.

막상 予想되는 難關을 順調롭게 克服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條件이 必要하다.

(1) GCC에는 長期的, 安定的 收入을 保障하고(2) 非GCC의 OPEC諸國은 最低 必要資金이 扞保 可能하여야 하고 (3) 消費國은 第Ⅲ次 以後의 石油危機가 回避 可能하고, (4) 石油價格이 25달러 以上이 되어 代替에너지 開發을 沮害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表-2)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移動이 생각될 수 있다.

90년의 消費 4,500만 B/D는 73년, 81년과 거의 같은水準이고, IEA의 予測처럼 90년까지는 需給逼迫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石油價格을 25달러程度에서 安定시키는 努力이 必要할 것이다. 그以後는 需給이 근근히 安定을 이루어 가지만, 確實히 代替에너지 開發이 계속된다면, 石油價格이 40달러 가까이됨에 따라 非OPEC 供給과 代替에너지 供給이 增加하고, 900만B/D程度는 充當하여(表-2 參照) 石油價格은 아직 上限值에는 到達하지 않고 35달러程度가 될 것이다.

사우디는 82年 中은 當時의 基準價格34달러의 83年 末까지의 凍結을 主張하고 있었다. 이러한 順調로운 難關克服이 生産國, 消費國의 合意形成으로 實現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1)의 條件을 充足시킬 수 있을 것이다. 石油價格의 漸進의 引上은 (3) (4)도 대체로 滿足시키고 있지만, (2)는, 不安하다. 이러한 어려움을 克服하기 위해서는 結局 3者 各各의 協助와 犧牲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GCC는 더욱 石油價格을 올릴 것을 固執하고, 非GCC인 OPEC諸國은 더욱 낮은 價格으로 販賣하며, 消費國은 当面 價格이 引下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25\$ 以下로 되지 않도록 努力하면서 長期的인 時点에서 代替에너지 開發을 推進하지 않으면 안된다.

日本の 原油輸入量은 第1次 石油危機인 74年에 494만B/D에서 79年에 465만B/D, 81年에 393만B/D, *82年에 364만B/D로 오늘날에도 큰 去來処인 石油輸入國이다. 다른 面에서도 74~82年에 實質GNP는 40% 增加하였고, 原油輸入量은 26% 減小하여 石油節約의 優等生이었으며, 83年 上半期에는 더욱 前年 上半期에 比해서 消費量은 9% 減小(330만B/D)할 것으로 予想되고 있다. 이것은 79年 東京頂上會談에서 大平首相이 苦心하면서도 獲得치 못했던 輸入 限度量(85年) 630만~690만B/D의 1/2인 것이다.

石油價格 變動에의 対応으로서 (I) 日本經濟에 미치는 影響과 (II)世界經濟 속의 한 消費國 日本에의 期待 등을 區別하는 것 또한 必要할 것이다.

(I)에서 5달러의 石油價格 下落은 67億달러(1兆6千億圓)의 原油代節約, 所得移轉이 되고나서, 關

聯産業은 利潤이 增加되고, 賃金增加, 生産物 價格引下 等に 配分이 可能하다. 備蓄石油의 評價損이 82年 末의 99日分으로서 16億배럴 程度되고, 短期의 收益을 圧迫하지만, 所得移轉效果가 서서히 浸透하여 經濟에 플러스 效果를 줄 것이다. 円貨는 評價切上되고, 輸出이 浸滯狀態에 빠지지만, 需給도 減小하고 經常収支는 黒字가 增加한다. 經濟企劃庁 經濟研究所의 世界모델에서는 時間이 지날수록 初年度 GNE(國民總支出)은 5달러 下落에 대하여 0.3% 增加할 것이라고 推定되고 있다.

이러한 受動的인 收益에 관해서는 政府가 關與할 차례가 그다지 아니다.

需給에 여유가 생기면, 石油는 經濟財이기 때문에 私企業 베이스에서 去來될 性質의 것이고, 收益이 利潤增大, 合理化投資에 利用된다 하더라도, 賃金引上, 物価下落, 따라서 消費支出 增加가 되어도 日本經濟成長에 플러스가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現在 衆知를 모아 論하여야 할 主題는 (II)에서 나타난 日本으로부터 期待되고 있는 積極的인 役割인 것이다.

開發投資와 海外協力도 重要

日本은 60年에는 GNP에서 世界의 2.8%이고 國際市場에서도 小國의 하나로서 市場價格을 주고 싶은대로 준다 해도 無防하였다.

그러나 80年에는 10.1%로 특히 貿易 面에서는 大國이 되었다. 石油처럼 有限資源이며, 자칫하면 政治財化하기 쉽고, 世界의 運命이 걸려 있는 경우는 世界가 共同으로 追求해야 할 바람직한 目標을 設定하고, 協力possible한 것은 努力하면서, 合意形成을 圖謀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当面 政府가 할 수 있는 可能한 일은 다음의 4가지로 생각한다.

(1) 石油需給은 不足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90年 頃에는 逼迫할 것이므로 短期의 石油價格과 關係없는 代替에너지의 開發, 原子力利用 等에의 政府의 研究, 開發投資를 아끼지 않는 일이다. 民間企業에서 의 에너지節約 努力은 不斷한 코스트節約 努力의 일환으로서 繼續될 것이지만, 이러한 開發投資에는 公的인 強力한 支持가 必須的이다.

(2) 90년까지는 需給도 타이트(tight) 하진 않지만,

그 時期에야말로 公的인 備蓄의 強化에 힘써야 한다. 民間의 備蓄에 低利 融資해 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石油價格이 暴騰할 것으로 予想하는 <시나리오A>의 可能性도 10%는 있는 것이므로 日本 經濟의 安定性 確保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3) 非GCC의 OPEC諸國(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등)과 OPEC外 중에서도 멕시코등 資金難에 빠져 있는 國家가 많은데 이들은 廉價販賣 競争과 後의 第3次 石油危機를 招來할 지도 모른다.

이러한 諸國의 開發資金 不足을 經濟協力の 強化로 떠맡고, 政治的·社會的 不安을 除去하는 것이 緊要하다.

(4) 世界經濟의 展望을 바탕으로 石油需給의 長期的 展望을 設定한 後, 受動으로서가 아닌 하나의

大消費國의 立場으로부터 長期的인 需給의 安定, 適正한 石油價格의 上昇을 實現하는 것과 같은 積極的인 提言을 할 수 있는 調整者(Coordinator)의 役割을 完遂하여야 한다.

廣義로 問題를 생각해 본다면, 世界經濟가 오늘날의 不況으로부터 脱出하고, 安定成長을 達成하는 길이 向後 닥쳐올 지도 모를 難關을 順調롭게 克服할 수 있는 必須의 條件이다.

世界全體規模로 본다면, 現在도 供給過小이며, 設備에 餘裕가 있는 나라는 케인즈의인 有效需要喚起策이 要求될 것이고 金利引下를 中心으로 하는 成長政策으로 先進國이 活性化되는 것이 82年 末 6,260億달러의 債務에 苦悶하는 開發途上國의 救濟에도 有效할 것이다.*

□ 海外動向 □

LPG現物價格 400弗線 公式價格보다 높아

現在 約 370萬b/d水準을 維持하고 있는 사우디의 낮은 產油量으로 인해 Petromin의 LPG顧客들은 2/4分期에도 契約物品の 50% 정도 밖에 引受하지 못할 것으로 予想되고 있다. 이에 따라 世界 LPG市場도 最近들어 아주 타이트하게 되었다.

消息通들에 따르면 사우디의 LPG顧客들은 今年 1/4分期에 契約物量의 65%밖에 引受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한다면 同期中 사우디 LPG生産量은 150萬噸水準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2/4分期의 사우디의 LPG生産量은 기껏해야 100萬噸水準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予想되고 있는 가운데 사우디國營石油會社인 Petromin은 顧客들에게 4月中 LPG供給量을 1/4分期에 供給치 못한 物量 10%를 包含 契約物

量의 總 50%로 削減하겠다고 通告하였다.

이같은 LPG市場의 梗塞에 대해 一部 顧客들은 LPG市場이 今年末까지는 회복될 可能性이 없다고 主張하고 있으나 Petromin의 Consultant인 뉴욕소재 Poten & Partners Inc는 精確한 수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今年 後半期에는 產油量의 增加로 인해 LPG產油量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LPG市場이 호전될 것이라고 展望하고 있다.

한편 LPG供給逼迫現象 이외에 사우디 LPG顧客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또한가지 問題는 價格問題인데 현재 現物市場에서는 CIF400弗의 높은 水準에서 去來되고 있다.

現在 사우디 LPG政府販賣價格은 부탄이 270弗, 프로판이 260弗이다.*